

서울 서남권 '오래가게' 발굴... '핫플레이스' 만든다

30년 이상, 2대 이상 전통승계 40곳 내외 발굴 총 2억원 투입

오래가게·주변 관광지 등 연계 외국인 관광객 중심 코스 발굴

서울시가 종로·중구, 용산·마포·서대문·은평구에 이어 서남권의 '오래가게'를 발굴한다. 오래가게란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며 서울의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가게를 뜻한다.

3월 시에 따르면 올해 영등포·구로·동작·관악·강서·양천·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에서 40개 내외의 오래가게를 발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했거나 2대 이상 전통을 계승한 가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오래가게로 선정해 시민들에게 소개해



종로구 관철동에 자리한 오래가게 '박인당'.

/서울시

왔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된 가게는 총 8302개다. 노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1040개)로 전체의 12.5%가 밀집해 있다. 종로구(876개), 동대문구(453개), 영등포구

(444개), 강남구(380개), 강북구(356개), 용산구(354개), 관악구(332개), 은평구(313개)가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노포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104개가 남아 있었다. 노원구(109개), 양천구(154개), 송파구

(198개), 강동구(216개)도 오래된 가게가 적었다.

시는 2017년 종로·중구에서, 지난해 용산·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 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고미술 화랑, 공방, 레코드점 등 총 65개의 오래가게를 발굴·홍보했다.

3대에 걸쳐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신당필방은 간송 전형필이 운영하던 고서점 한남서림 터(종로구 인사동길 34)에 위치해 있다. 스페인 국왕 부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해 이름 전각을 새겨줬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설립된 통인가게는 전국의 수준 높은 고미술품 집결지다. 통인가게는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전파와 보급을 목표로 4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장신구, 조명, 액자 등 현대 공예품부터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미술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시는 서남권 오래가게와 주변

관광지, 먹거리를 연계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험 코스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단체와 대기업 등 민간 기업과 제휴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

오래가게 자문단은 "서남권의 특징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며 "인쇄소, 금속세공 등 지역의 역사적 특징이 반영된 업종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는 지역 자산인 노포를 일본의 '시니세(老舗)'나 유럽의 '백년가게'처럼 서울만의 개성을 알리고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연학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선정된 오래가게에는 각 지역의 고유성을 포함해 문화적 가치를 더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 관광벨트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성을 설정한 후 오래가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3년내 그늘목 심터 400곳 조성

교통섬·횡단보도 주변에 나무심어 미세먼지 흡수·기후변화 등에 대응



그늘목 심터가 조성된 올림픽대교북단 교통섬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그늘목 심터 400곳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늘목 심터는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주변 유휴공간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 만든다. 기존의 천막시설처럼 단순히 그늘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흡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심터

늘목 심터를 조성한다. 특히 113곳 중 35곳에는 그늘목을 2주 이상 식재할 방침이다.

시는 그늘목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신호등을 가리지 않도록 도로변에 이격거리를 두고 보도 안쪽으로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해가 갈수록 서울시 폭염 일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늘목 심터 조성사업을 통해 폭염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에는 의자 등 휴게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교통섬 71곳, 횡단보도 42개소 등 총 113개의 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호응

가구당 50만원씩 총 119억 지원 전체 출생아 가정 80% 지원받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기념식수. /경기도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 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

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5월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약비율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평택 포승지구에 '스마트도시' 도입

환경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 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도시를 도입한다. 황해청은 3일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이 적용된 평택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원격으로 교통·방범·방재 등의 공공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 포승(BIX)지구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30만㎡ 이상 신규 개발 지구

에 대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도시의 특징은 통신설비의 미래 확장성을 고려, 촘촘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정보제공 BIT ▲주정차위반단속 ▲공공지역안전감시 ▲재난CCTV ▲교통제어 ▲돌발상황감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별마당 도서관에 '책의 성전' 전시

개관 2주년 기념 콘텐츠 선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별마당 도서관 한 가운데 '열린 아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주현제 작가의 설치 미술품 '책의 성전'을 전시한다. 책의 성전은 별마당 도서관의 수많은 책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반짝거리는 투명한 소재를 쌓아 올려 책을 표현한 거대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별마당 도서관 2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영



별마당도서관 /신세계그룹

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명사들의 강연과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시, 오늘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오픈

서울시는 4일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연구·지원기관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발굴·개발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중심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서울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밀착

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실태분석 등을 하는 '정책연구팀'과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상권분석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창업~성장~퇴로기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업종, 상권별 정기적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김현정 기자